

'26.9월 취업자수 11.3만명 증가, 제조업 취업자수는 27개월만에 증가 전환

- 서비스업 증가폭 조정, 건설업 감소폭 확대, 농림어업 감소폭 축소
- 상용근로자 증가폭 확대되며 9월 기준 상용직 비중 역대 1위
-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 통해 확산되도록 「국민일자리 프로젝트」 추진방안 마련

① '26.9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3.5%로 전년대비 $\Delta 0.2\%p$ 하락했으며, 15~64세 고용률은 70.6%로 $+0.2\%p$ 상승했다. 경제활동참가율(64.8%)은 전년대비 $\Delta 0.2\%p$ 하락, 실업률(2.0%)은 $\Delta 0.1\%p$ 하락했다.

* 9월 고용지표('25→'26년, %): <고용률> 63.7 → **63.5** <경활률> 65.0 → **64.8** <실업률> 2.1 → **2.0**

○ 연령별로는 30대(81.6%, $+0.2\%p$) · 40대(80.9%, $+0.5\%p$) · 50대(79.2%, $+1.3\%p$) 고용률이 상승했고, 60세 이상(47.9%, $\Delta 0.4\%p$)은 하락했다.

- 청년(15~29세) 고용률(44.0%, $\Delta 1.1\%p$)은 하락세를 지속했으나, 쉬었음 인구는 8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했다.

* 청년 쉬었음(만명): ('25.9)40.9 ('26.2)48.5 (3)40.2 (4)39.1 (5)38.4 (6)35.9 (7)36.7 (8)39.5 **(9)36.4**
↳ <전년비, 만명> ('25.9) $\Delta 3.4$ ('26.2) $\Delta 2.0$ (3) $\Delta 5.3$ (4) $\Delta 2.4$ (5) $\Delta 1.2$ (6) $\Delta 4.9$ (7) $\Delta 6.9$ (8) $\Delta 5.1$ **(9) $\Delta 4.4$**

※ 15~34세(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) 고용률은 56.1%로, 전년대비 $\Delta 0.4\%p$ 하락

○ 9월 기준으로 15세 이상 고용률과 경활률은 역대 2위이며, 15~64세 고용률은 역대 1위를 기록했다.

②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1.3만명 증가했으며, 계절조정으로는 전월대비 4.0만명 증가했다.

* 취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: ('25.9)31.2 ('26.3)20.6 (4)7.4 (5) $\Delta 4.0$ (6)6.3 (7)10.8 (8)18.4 **(9)11.3**

○ 업종별로는 제조업($\Delta 3.8 \rightarrow 1.6$ 만명)의 경우, 양호한 기업심리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의 수출 호조 등이 시차를 두고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'24.6월 이후 27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.

- 서비스업은 보건복지(18.6→20.7만명), 운수창고(2.1→5.4만명), 전문과학(△0.5→0.0만명) 등은 개선되었으나, 도소매(2.1→△0.1만명), 예술여가(7.3→1.9만명), 숙박음식(△6.1→△9.7만명) 등 내수업종은 전년 기저 등으로 조정되었다.

* 서비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[(25.9)58.8] (4/4)46.7 (26.1/4)31.5 (2/4)25.4 (3/4)28.7 [(8)34.5] **(9)22.1**

- 건설업(△3.2→△4.8만명)은 전년 기저(^{25.8월}△13.2→^{9월}△8.4만명)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.

- 지위별로는 상용직(18.0→25.3만명)이 '25.11월 이후 가장 큰 폭 증가하며 9월 기준 상용직 비중(57.8%)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. 임시직(△5.0→△8.1만명)과 일용직(△1.7→△5.5만명)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.

- ③ 9월 취업자수는 전년 기저(^{25.8월}16.6→^{9월}31.2만명) 등으로 전년대비 증가폭은 축소되었으나, 3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. 계절조정 취업자수도 전월대비 4개월 연속 증가하여 중동전쟁 이전 최고 수준을 회복하였다.

* 계절조정 취업자(만명): **(26.2)2,895.6** → (5)2,874.3 (6)2,880.9 (7)2,886.2 (8)2,894.4 **(9)2,898.5**

- 다만 청년, 건설·농림어업 등에서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, 최근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이 하방요인으로 지속 작용할 우려가 있다.

- ④ 정부는 최근 취업자수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,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를 통해 확산되도록 범부처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.

- 우선, 일자리 부문 3대 핵심 사회정책 구체화를 위해 민간·공공 일자리 창출을 포함하는 「국민일자리 프로젝트」 추진방안을 마련한다.
- 건설·농림어업 등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업종은 일자리 전담반을 중심으로 산업활력 제고, 인력양성 등 대응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.
- 내년 본격 집행 예정인 「청년일자리 회복방안」(8.28일) 주요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집행·홍보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.

재정경제부 <총괄>	민생경제국 인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태웅 (044-215-2840)
		담당자	사무관	박종운 (044-215-2842)
고용노동부 <공동>	고용정책실 미래고용분석과	책임자	과 장	조원식 (044-202-7260)
		담당자	사무관	김주봉 (044-202-7256)

1. '26.9월 고용동향 특징

□ 고용률 63.5%(월간 역대 2위), 경제활동참가율 64.8%(월간 역대 2위), 실업률 2.0%, 취업자수 11.3만명 증가

- 15세 이상 고용률 63.5%로 $\Delta 0.2\%p$ 하락(^{9월 기준}역대 2위, '82.7월~), 15~64세 고용률 70.6%로 $+0.2\%p$ 상승(^{9월 기준}역대 1위, '89.1월~)

* 고용률(15세+, %): ('25.4/4)62.7 ('26.1/4)61.8 (2/4)63.2 (3/4)63.4 [(7)63.3 (8)63.3 (9)63.5]
고용률(15-64세, %): ('25.4/4)70.0 ('26.1/4)69.3 (2/4)70.1 (3/4)70.4 [(7)70.3 (8)70.4 (9)70.6]

- 경제활동참가율 64.8%로 $\Delta 0.2\%p$ 하락(^{9월 기준}역대 2위, '99.6월~)

* 경활률(15세+, %): ('25.4/4)64.6 ('26.1/4)64.1 (2/4)65.1 (3/4)64.8 [(7)65.0 (8)64.6 (9)64.8]

- 실업률은 2.0%로 $\Delta 0.1\%p$ 하락(^{9월 기준}역대 최저 1위, '99.6월~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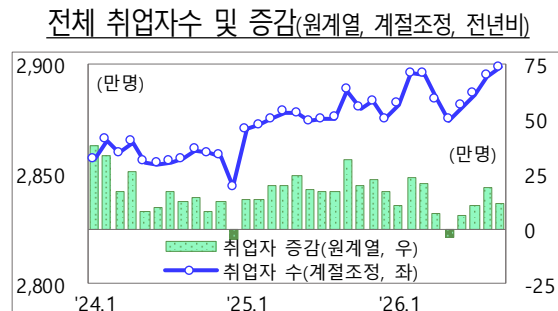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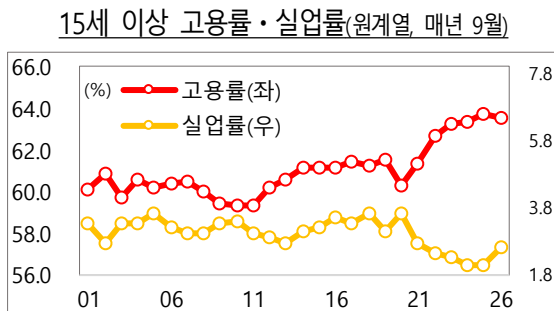
* 실업률(15세+, %): ('25.4/4)2.9 ('26.1/4)3.5 (2/4)2.9 (3/4)2.2 [(7)2.6 (8)2.0 (9)2.0]

-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1.3만명 증가

* 취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: ('25.4/4)19.5 ('26.1/4)18.3 (2/4)3.2 (3/4)13.5 [(7)10.8 (8)18.4 (9)11.3]

-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전월대비 4.0만명 증가

* 계절조정 취업자 증감(전기비, 만명): ('25.4/4) $\Delta 0.2$ ('26.1/4)11.7 (2/4) $\Delta 11.2$ (3/4)13.4 [(7)5.3 (8)8.2 (9)4.0]



□ (산업) 제조업 증가 전환, 서비스업 증가세 지속, 건설업 감소폭 확대

- (제조) 양호한 기업심리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의 수출호조 등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며 '24.6월 이후 27개월만에 증가 전환($\Delta 3.8 \rightarrow 1.6$ 만명)

* 제조업 취업자전년비, 만명: ('25.4/4) $\Delta 5.2$ ('26.1/4) $\Delta 2.7$ (2/4) $\Delta 9.7$ (3/4) $\Delta 3.0$ [(7) $\Delta 6.8$ (8) $\Delta 3.8$ (9)1.6]

* 일평균 수출 증가율(전년비, %): ('26.2)49.8 (3)43.9 (4)47.8 (5)60.4 (6)60.4 (7)70.2 (8)72.5 (9)104.9
↳주요품목 증가율(전년비, %, 8→9월): (반도체)209.0→262.8 (자동차) $\Delta 29.8 \rightarrow \Delta 5.5$ (기계)1.8→ $\Delta 3.2$

* 제조업 BSI(장기평균=100): ('26.3)98.9 (4)95.9 (5)98.0 (6)100.3 (7)98.2 (8)100.5 (9)102.5 (10)101.1
원자재구입가격전망BSI(장기평균=100): ('26.3)125 (4)138 (5)149 (6)141 (7)136 (8)128 (9)122 (10)121

- **(서비스) 전년 기저**(^{25.8월}48.4→^{9월}58.8만명) 등으로 **증가폭 축소**(34.5→22.1만명)
 - * 서비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4/4)46.7 ('26.1/4)31.5 (2/4)25.4 (3/4)28.7 [(7)29.5 (8)34.5 **(9)22.1**]
 - * 공공복지 외 서비스(전년비, 만명): ('25.4/4)20.9 ('26.1/4)10.8 (2/4)2.9 (3/4)6.3 [(7)7.6 (8)12.7 **(9)1.3**]
- **보건복지**(18.6→20.7만명), **공공행정**(3.2→2.7만명)은 **돌봄수요 증가, 직접일자리 사업 정상추진** 등으로 **증가세 지속**
 - * 보건복지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4/4)26.0 ('26.1/4)25.6 (2/4)22.9 (3/4)18.9 [(7)17.3 (8)18.6 **(9)20.7**]
 - * 공공행정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4/4)△0.2 ('26.1/4)△4.9 (2/4)△0.4 (3/4)3.5 [(7)4.6 (8)3.2 **(9)2.7**]
- **금융보험**(2.3→3.2만)·**정보통신**(2.8→1.0만) **증가, 전문과학**(△0.5→0.0만) **보합 전환**(^{25.11월} 이후 처음) 등 **지식기반서비스업 개선흐름 지속**
 - * 금융보험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4/4)3.7 ('26.1/4)1.6 (2/4)0.6 (3/4)3.0 [(7)3.4 (8)2.3 **(9)3.2**]
 - * 정보통신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4/4)0.9 ('26.1/4)△2.0 (2/4)3.0 (3/4)2.0 [(7)2.2 (8)2.8 **(9)1.0**]
 - * 전문과학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4/4)△1.9 ('26.1/4)△8.8 (2/4)△8.8 (3/4)△1.6 [(7)△4.4 (8)△0.5 **(9)0.0**]
- **운수창고**(2.1→5.4만명)는 **증가폭 확대**, 다만 **도소매**(2.1→△0.1만명)·**예술여가**(7.3→1.9만명)·**숙박음식**(△6.1→△9.7만명)은 **전년 기저** 등으로 **조정**
 - * 운수창고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4/4)4.2 ('26.1/4)7.6 (2/4)3.4 (3/4)2.3 [(7)△0.5 (8)2.1 **(9)5.4**]
 - * 예술여가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4/4)6.2 ('26.1/4)5.3 (2/4)5.1 (3/4)4.7 [(7)4.8 (8)7.3 **(9)1.9**]
 - * 도소매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4/4)3.4 ('26.1/4)0.9 (2/4)△4.4 (3/4)0.5 [(7)△0.5 (8)2.1 **(9)△0.1**]
 - * 숙박음식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4/4)△0.7 ('26.1/4)△1.5 (2/4)0.0 (3/4)△5.2 [(7)0.2 (8)△6.1 **(9)△9.7**]
- **(건설) 건설기성 증가 전환**에도, **전년 기저**(^{25.8월}△13.2→^{9월}△8.4만명), **자재수급지수 하락** 및 **건설공사비 상승** 등으로 **감소폭 확대**(△3.2→△4.8만명)
 - * 건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4/4)△10.6 ('26.1/4)△2.5 (2/4)△3.9 (3/4)△4.5 [(7)△5.7 (8)△3.2 **(9)△4.8**]
 - * 자재수급지수: ('26.1)88.5 (2)91.0 (3)74.3 (4)55.3 (5)63.4 (6)66.3 (7)80.0 (8)80.9 **(9)78.8**
 - * 건설공사비(전년비, %): ('26.1)1.9 (2)2.1 (3)2.6 (4)4.6 (5)5.2 (6)5.6 (7)5.9 **(8)6.0**
 - * 건설기성(전기비, %): ('25.4/4)△4.1 ('26.1/4) 0.5 (2/4) 0.1 [(5) 3.3 (6) 4.1] (7)△1.0 (8)1.9
↳ (전년동기비, %): ('25.4/4)△15.1 ('26.1/4)△6.1 (2/4)△4.9 [(5)△3.7 (6)△4.4] (7)△3.4 (8)1.3
- **(농림)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** 등으로 **감소세 지속**(△10.9→△9.4만명)
 - * 농림어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4/4)△12.4 ('26.1/4)△8.5 (2/4)△10.2 (3/4)△9.4 [(7)△8.0 (8)△10.9 **(9)△9.4**]

□ **(지위·연령) 상용직 비중 57.8%(+0.6%p), 30·40·50대 고용률 상승**

- **(지위) 상용직 증가폭 확대**(18.0→25.3만명)·**상용직 비중 역대 최고**, **임시**(△8.1만명)·**일용직**(△5.5만명)은 **감소**
 - * 상용직 비중(9월, %): ('00)30.0 ('05)34.9 ('10)42.5 ('15)48.6 ('20)53.6 ('25)57.2 **(26)57.8**
임금근로자 증감(전년비, 만명, 8월→9월): <상용>18.0→25.3 <임시>△5.0→△8.1 <일용>△1.7→△5.5
- **비임금근로자**(△0.5만명)는 **고용無 자영업자**(4.9만명)가 **증가했으나**, **고용有 자영업자**(△0.8만명) 및 **무급가족종사자**(△4.6만명)는 **감소**
 - * 비임금 증감(전년비, 만명, 8→9월): <고용有>4.7→△0.8 <고용無>6.2→4.9 <무급>△3.7→△4.6

○ **(연령) 30·40·50대 고용률 상승, 청년층(15~29세)·60대 이상은 하락**

(%, %p)		'25년	4/4	'26.1/4	2/4	3/4	8월	9월
고용률	15-29세	45.0 (△1.1)	44.4 (△0.9)	43.5 (△1.0)	43.8 (△1.9)	44.1 (△1.2)	44.1 (△1.0)	44.0 (△1.1)
	20初	43.6 (△1.5)	42.6 (△1.3)	40.5 (△2.2)	41.3 (△3.2)	42.3 (△2.5)	42.4 (△1.8)	41.9 (△2.7)
	20後	71.8 (△0.7)	71.5 (△0.7)	70.6 (△0.6)	71.5 (△1.0)	71.4 (△0.4)	71.2 (△0.5)	71.7 (+0.0)
	15-34세	56.2 (△0.3)	55.9 (△0.2)	55.3 (△0.2)	55.9 (△0.8)	56.1 (△0.5)	56.1 (△0.4)	56.1 (△0.4)
실업률	15-29세	6.1 (+0.2)	5.7 (+0.1)	7.4 (+0.6)	7.1 (+0.4)	5.9 (+0.8)	5.4 (+0.5)	5.4 (+0.6)
	20初	6.6 (+0.3)	5.4 (△0.4)	8.2 (+0.1)	7.7 (+0.2)	5.8 (+0.5)	5.2 (△0.1)	5.0 (+0.2)
	20後	5.9 (+0.3)	5.8 (+0.2)	6.9 (+0.6)	6.8 (+0.5)	6.0 (+1.0)	5.6 (+0.8)	5.7 (+0.8)
	15-34세	4.8 (+0.1)	4.7 (+0.4)	5.9 (+0.5)	5.6 (+0.5)	4.6 (+0.4)	4.2 (+0.1)	4.2 (+0.1)

- 청년층(15~29세)은 고용률(44.0%, △1.1%p) 하락, 실업률(5.4%, +0.6%p) 상승, 쉬었음(36.4만명, △4.4만명)은 8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

* 청년 쉬었음(만명): ('25.9)40.9 ('26.2)48.5 (3)40.2 (4)39.1 (5)38.4 (6)35.9 (7)36.7 (8)39.5 **(9)36.4**

※ **15~34세**(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)는 고용률(56.1%, △0.4%p) 하락, 실업률(4.2%, +0.1%p) 상승

◇ 일자리 어려움 겪는 '실업자+취업준비+쉬었음' 비중(9월 12.0%, 93.3만명)은 전년대비 감소(△0.4%p, △4.8만명), 예년('21~'25년 평균 13.0%)보다 낮은 수준

청년층 인구 중 쉬었음·취업준비·실업자 비중(9월 기준, %)

(8월 기준, 만명, %)		최근 5년 평균 (21~25)	'21	'22	'23	'24	'25	'26
합계(A+B+C)	수(인구내비중)	108.3 (13.0)	122.5 (14.0)	114.3 (13.4)	103.5 (12.4)	101.9 (12.6)	98.1 (12.4)	93.3 (12.0)
실업자(A)	수(인구내비중)	21.5 (2.6)	22.3 (2.6)	25.8 (3.0)	21.4 (2.6)	19.9 (2.0)	17.9 (2.3)	19.4 (2.5)
취준생(B)	수(인구내비중)	46.5 (5.6)	59.6 (6.8)	49.7 (5.8)	44.8 (5.4)	39.0 (4.9)	39.3 (5.0)	37.5 (4.8)
쉬었음(C)	수(인구내비중)	40.4 (4.9)	40.6 (4.7)	38.8 (4.6)	37.3 (4.5)	44.2 (5.7)	40.9 (5.2)	36.4 (4.7)

※ 청년층은 쉬었음 사유(노동시장적 사유, 경제활동 준비, 일시적 휴식 등), 구직의사 등 이질적 특성 보유

* "쉬었음"은 비경활 활동상태 중 다른 명확한 유형(육아가사, 취업준비, 통학 등)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사유를 모두 포괄하여 이질성이 높은 특성

* 20~30대 쉬었음 사유('25.8월 비경활부가조사, %):
(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움)31.0 (건강)20.7 (다음일 준비)19.1 (일자리 없음)9.3

- 30대는 인구와 취업자수가 같은 폭 증가하며 고용률 상승, 40대는 인구감소 비해 취업자수 소폭 감소하며 고용률 상승

* 30대 고용률 증감(전년대비, %p): ('25.4/4)0.2 ('26.1/4)0.5 (2/4)0.1 (3/4)0.2 [(7)0.0 (8)0.3 (9)0.2] **[81.6]**
40대 고용률 증감(전년대비, %p): ('25.4/4)1.0 ('26.1/4)1.2 (2/4)0.8 (3/4)0.7 [(7)0.7 (8)0.8 (9)0.5] **[80.9]**

- 50대는 인구는 감소했으나 취업자수는 증가하며 고용률 상승, 60세 이상은 고령화 등으로 인구 큰 폭 증가하며 고용률 하락

* 50대 고용률 증감(전년대비, %p): ('25.4/4) 0.3 ('26.1/4)0.8 (2/4)0.7 (3/4)1.2 [(7)1.1 (8)1.3 (9)1.3] **[79.2]**
60세+ 고용률 증감(전년대비, %p): ('25.4/4) 0.5 ('26.1/4)0.1 (2/4)△0.3 (3/4)△0.2 [(7)△0.1 (8)△0.3 (9)△0.4] **[47.9]**

2. 평가 및 대응

□ '26.9월 취업자수는 3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(^{8월}18.4→^{9월}11.3만명), 부문·계층별로는 제조업은 증가전환했으나 청년, 건설업은 지속 감소

- 9월 취업자수는 전년 9월 기저(+31.2만명) 등으로 전년대비 증가폭은 축소되었으나, 3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 지속
 - 계절조정 취업자수도 전월대비 4개월 연속 증가하여 중동전쟁 이전 역대 최고수준 회복(2,898,5만명, 종전 최고치는 '26.2월 2,895.6만명)
- 제조업은 수출호조 등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며 27개월만에 증가 전환, 다만 중동 불확실성 등 리스크도 상존하는 만큼 지속 모니터링 필요
- 서비스업은 전년 기저(^{25.8월}48.4→^{9월}58.8만명) 등으로 증가폭 축소
 - 공공·복지는 직접일자리 사업 정상추진 등으로 증가폭 확대, 지식기반 서비스업도 금융보험 증가폭 확대, 전문과학 보험 등 개선흐름 지속
 - 도소매, 예술여가, 숙박음식 등 내수업종은 전년 기저 등으로 조정
- 건설업은 건설기성 증가 전환에도 전년 기저(^{25.8월}△13.2→^{9월}△8.4만명), 자재수급지수 하락 및 건설공사비 상승 등으로 감소세 지속
- 청년은 고용비중 높은 숙박음식 취업자 감소 등으로 고용률 하락세 지속, 다만 쉬었음은 8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
 - * 청년 쉬었음(만명): ('25.9)40.9 ('26.2)48.5 (3)40.2 (4)39.1 (5)38.4 (6)35.9 (7)36.7 (8)39.5 (9)36.4
↳ <전년비, 만명> ('25.9)△3.4 ('26.2)△2.0 (3)△5.3 (4)△2.4 (5)△1.2 (6)△4.9 (7)△6.9 (8)△5.1 (9)△4.4
- 10월은 전년 기저효과(^{25.9월}31.2→^{10월}19.3만명)가 완화된 것으로 보이나 최근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 우려

□ 성장 과실이 일자리 통해 확산되도록 「국민일자리 프로젝트」 추진방안 마련

- 일자리 부문 3대 핵심 사회정책 구체화 위해 민간·공공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「국민일자리 프로젝트」 추진방안 마련
- 건설·농림어업 등 고용부진 업종은 일자리전담반 등 통해 산업활력 제고, 인력양성, 근로여건 개선 등 대응방안 강구
- 내년 본격집행 예정인 「청년일자리 회복방안」(8.28)의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집행·홍보 등 사전준비에 만전